

현대패션에 나타난ミリ터리 룩의 특성 -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on the military look in modern fashion - focused on the post-2000 era -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조교수 김 선 영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un You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ミリ터리 룩의 변천 | 참고문헌 |
|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의 특성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look in modern fashion. The materials for the study are mainly precedent studies and related literature, although fashion portfolios and magazin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e used for the exploratory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ilitary look for women dismantles the sexual symbolism endowed with the clothes by expressing a neutral charm out of dichotomy image between genders. The neutral expression of the military look, different from the military look of the 20th century, provides a chance to feature a new image by pursuing more individual freedom than human itself. Second, the military-look emphasizes feminine sensual charm through exposing, concealing, or decorating with ornaments which are transformed from the elements of the military clothes, This is different from the past military look that expressed masculine rigidity through simplifying the details and emphasizing the male body silhouette. Third, the military look produces a deconstruction image instead of just showing its intrinsic thoughts or symbolic message through combining design elements or symbolic details of the military look with other images, transforming and exaggerating the shapes, or mixing the time point of views reinterpreting the present or the future image.

주제어(Key Words): 중성성(Neutrality), 관능성(Sensualism), 해체성(Deconstruction)

I. 서론

패션은 그 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 기술 등 시대를 반영하는 문화의 산물로서 당시 사회의 환경적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되며 따라서 패션의 흐름은 사회기반의 변화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 인간 내면의 미의식까지도 반영하게 된다.

특히 패션에 있어 종교나 이데올로기 같은 정신적 산물 또는 충격적인 문명의 이기가 나올 때면 그 파급효과는 의식주 뿐만 아니라 문화체계 전반에 걸쳐 혁신으로 나타나며 대중들의 정서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임상임, 추미경, 2004). 이 중에서도 전쟁의 영향은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변화일 수 있으며 군복 역시 그러한 변화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전쟁은 형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용병이나 동맹국, 후원국의 영향으로 이국적인 양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Elizabeth B, Hurlock, 1990: 231).

제 1·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발달된 밀리터리 룩은 남성군복에서 영감을 얻어 여성복에 새로운 개혁을 가져왔고, 전쟁의 영향력이 소멸된 시기에도 꾸준히 등장하여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패션의 한 테마로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밀리터리 룩에 관한 연구에(임상임, 추미경, 2004; 채금석, 이화정, 2002; 한순자, 1999; 간문자, 1997; 윤경은, 2003; 김지영, 1997; 김지희, 1997) 있어서도 밀리터리 룩에 표현된 파시즘이나, 성적 이미지, 조형성, 전반적인 밀리터리 룩에 대한 역사적고찰, 밀리터리 룩을 이용한 디자인 개발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대상 시기가 1990년대 중반까지로 집중되어 있어 이후 시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다원주의와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로 각 장르와 영역에서 경계의 초월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패션의 흐름속에서 새롭게 표현되고 있는 밀리터리 룩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패션이 표현하는 양상과 미의식을 이해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밀리터리 룩의 변천을 알아보고,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패션관련 작품집과 국내외 패션잡지 등을 이용하였다. 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범위는 2000년 이후의 작품만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문화와 첨단기술의 발전, 물질적 풍요에 따른 가치관과 윤리관의 변화 등 미의식의 변화가 예상되는 새로운 전환적 시기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II. 밀리터리 룩의 변천

리터리는 군대, 군인의 뜻으로 여성복에서 남성 군복의

요소를 살려 디자인된 것을 밀리터리 룩 또는 밀리터리 스타일이라고 부르며 패션에 응용되어 밀리터리 룩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정착시켰고 시즌마다 패션의 한 주제로 사용되고 있다.

1. 20세기 전반

20세기 전반기는 2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산업화, 과학화, 대중화되었고, 이러한 현상들은 여성들의 의식변화 및 음악, 미술을 비롯한 각종 예술사조와 대중문화 뿐만 아니라 복식에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의 영향으로 남성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로 진출한 여성들은 자유와 권리, 직업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6: 217),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복식변화에 따라서 코르셋이 폐지되고 활동적인 짧은 스커트를 착용하게 되었고 스타킹의 출현과 간편한 부츠를 착용하는 등 여성복의 단순화와 합리화가 이루어졌다(J. Anderson Black, Madge Garland, 1997: 170). 영국의 복식비평가 카터(Carter)는 1차대전 중 최초로 여성이 직업과 수입원을 가짐으로써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패션에 대한 관심은 상승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군복제작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의류생산 방법이나 기계가 발달되어 조직적이며 생산적인 의복 산업화의 기틀이 잡혔다고 분석하였다(이유미, 1996).

제 1차대전 기간 중에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상하가 붙은 작업복인 보일러 슈트나 활동적인 바지를 착용하였고, 여성들도 테일러 슈트를 공공연히 착용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상복을 착용하였다(김지희, 1997). 1918년에 전쟁이 대량 물량전으로 바뀜에 따라 직물의 부족은 심각하여 디자이너들은 하나의 의상에 4 1/2야드 이상을 사용할 수 없었다. 1918년 보그지는 '일하며 입는 옷이야말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의 상징이며 가장 새로운 멋이다.' 라고 하였듯이, 단순함은 이 시기의 이상적 기준이었고 몰타 절약의 방법이 제시되었으며(Jane Malvaugh, 1988: 33), 군복이미지의 단추 달린 포켓이나 선이 둘러진 커프스와 같은 디테일을 디자인에 응용함으로써 남성적인 강인한 이미지의 밀리터리 룩을 탄생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김지희, 1997). 또 라펠, 견장, 버클 달린 벨트가 있는 영국 방한복은 점차 남성과 여성의 기본 오버코트가 되었고, 프랑스 군인이 착용했던 베레모는 제 1차대전을 통해 남·여성 모두에게 인기있는 스포츠 모자가 되었다(Shirley M. O' Donnel, 1989: 13). 이와 같이 제 1차대전 시기의 밀리터리 룩은 군복의 차용이라기 보다 시대적인 여건에 따른 요구로 복식의 변화가 있었고 전시기 때문에 군복과 유사한 형태가 형성

되었다(그림 1).

이후 1929년부터 시작된 경제공황은 제 2차대전(1939~1945)까지 이어지면서 세계는 불안과 혼란의 시기를 맞게 되었고 모든 것을 절약하고 재생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의류산업에 있어 정부의 법적 제재로까지 이어져 1941년 영국 무역청은 유틸리티 클로스(Utility Cloth)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자부족 현상은 오히려 단순하고 기능적인 밀리터리 룩의 절정을 맞게 했으며 단순함을 기본으로 하는 기성복 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패션에 있어서는 어깨 폭이 보다 각지고 넓게 과장된 테일러 슈트에 길이가 짧은 직선형의 타이트 스커트, 작은 모자, 굽이 있는 구두 등 엄격하고 딱딱한 남성적 이미지를 풍기는 제복스타일의 남성화된 밀리터리 룩으로 변화했다(그림 2).

전쟁 후에도 밀리터리 룩은 계속 유행하였으나 전체적인 실루엣은 다소 여성적으로 변하여 허리선이 가늘어지고 약간 올라갔으며 넓은 어깨는 더욱 넓어지고 재킷 아래쪽에 부착된 포켓으로 가는 허리가 한층 강조되었다.

2. 20세기 후반

20세기 후반기의 패션경향은 대중문화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패션에 있어서도 주류와 비주류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절충된 스타일이 복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젊은이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이 보다 주목받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발생한 베트남전은 젊은 세대에게 강한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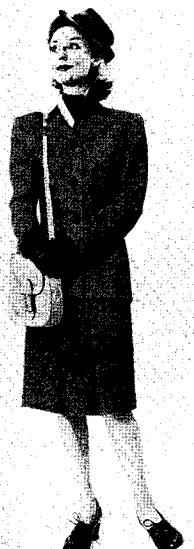
전운동을 불러 일으켰고 반전주의자들이 군복스타일을 입으면서 밀리터리 룩은 패션에 있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패드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전쟁을 반대하던 히피들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낡고 커다란 군용코트나 위장 재킷 등의 군복을 입고 저항운동을 하였고(Elizabeth Rouse, 1989: 296-297),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미룩(Army Look)스타일의 유니섹스 모드로 전개되었다. 즉 70년대 밀리터리 룩은 군복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전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양면적인 아이러니, 그렇기 때문에 군복이 주는 힘, 질서, 규율과는 거리가 먼 풍자적으로 보이는 히피들의 저항패션과 젊은이들의 스트리트 패션으로 나타났으며(간문자, 1997) 하이패션으로까지 상향 전파되는 혁신적 유행의 흐름을 갖게 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이란, 이라크전과 동·서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굳게 닫혀 있던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구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글라스 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같은 개방과 정치개혁을 서두르(유송옥 외 2인, 1996: 238)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붕괴되어 동구권의 군복을 모티브로 한 밀리터리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또한 1989년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으로 나폴레옹시대의 군복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이 제시되기도 하였다(Hi Fashion, 1989: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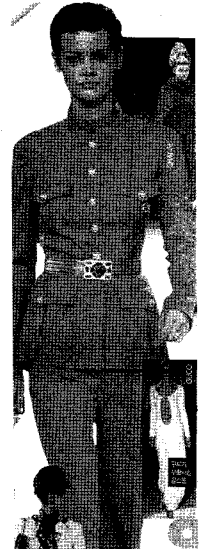
1990년대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세기말적 경향과 미래적 경향이 공존하였던 시기로 특히 1991년 걸프전과 같은 국지전의 영향과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1995)을 기념하는 의미로 밀리터리 룩이 대거 등장하였다. 베트남전 이후 대체적인 평화 속에서 동구의 몰락과 2차대전 종전의 반세기를



〈그림 1〉 제 1차대전 중의 밀리터리룩, 1915 (서양복식사, p. 365)



〈그림 2〉 제 2차대전 중의 밀리터리룩, 1939 (Costume & Fashion, p. 295)



〈그림 3〉 Chanel-Karl Lagerfeld, 1996 F/W (Elle, 2000. 11)

맞이하면서 새로운 물질적 안정을 누리던 젊은 세대들에게 중
동전은 충격이자 새로운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여(한순자,
1999) 밀리터리 룩은 스트리트패션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밀리터리 룩은 1996 F/W에 전 세계디자이너들이
컬렉션에서 채택한 패션의 주요 테마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가장 두드러진 밀리터리 룩을 선보인 칼 라거펠드(Karl
Lagerfeld)는 샤넬(Chanel) 특유의 골드버튼과 벨트로 장식
한 화려한 밀리터리 룩을 출현시켰다 <그림 3>. 또 1997년은
150년 만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시기로 이후 패션계에서
는 중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도 하
여, 디올(Dior)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중국고전 인
민복을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하여 전통적인 모든 체제나 질
서, 가치관 등이 변화된 내셔널리즘의 표현을 나타내기도 하
였다(그림 4).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밀리터리 룩은 서로 상반
된 요소들이 서로 섞이고 혼합되어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함
과 동시에 혼란스러운 시대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복고풍의 유행과 함께 역사적 군복
에서 영감을 얻은 밀리터리 룩이 등장하기도 했고, 단순히
군복의 외형이나 디테일을 응용하는 것 외에 전쟁이나 테러
에 대한 절망감, 공포 등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하려는 의지
를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1990년대 밀리터리 룩의 전반적인
경향은 강한 남성적 이미지 대신 색채와 디테일을 중심으로
부드럽고 여성적인 이미지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기능성
과 활동성이 주는 편안함과 강한 이미지의 독특한 매력으로
하이패션에서는 일시적 유행현상이 아닌 하나의 클래식과

같이 적용되어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의 원천으로서 작
용하게 되었다.

Ⅲ. 현대패션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의 특성

20세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패션에 있어 밀리
터리 룩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자리잡게 하였다. 이
후 일시적인 유행 현상이 아닌 패션의 한 트렌드로서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제공한 밀리터리 룩은 21세기에 들
어와 미·이라크 전쟁과 북핵의 위협, 9·11테러로 인해 사
회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군복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조성
되었다.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이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인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감각의 유틸리티 패션 트렌드
와 맞물려 밀리터리 룩은 일상복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현상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패션이 추구하는 비행식성
을 통한 자유로움의 표현이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면을 충
족시키기에 군복이 적합한 형태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
으로 다양한 패션이미지들과 함께 조합되고 재해석되어 독창
적인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다. 또 군복의 포켓과 벨트, 여밈
장식, 지퍼, 카무플라주 패턴 등의 디테일과 군복의 부수적인
액세서리를 적극 응용하여 기능적 목적 이외에 장식적인 요
소로 활용하여 남성적 이미지가 아닌 여성성이 강조된 이미
지 또는 중성적인 이미지의 밀리터리 룩으로 응용되었다.

그리고 군복이 전쟁의 부산물로서 반체제적인 저항과 도



<그림 4> Christian Dior-John Galliano,
1999 S/S (Elle, 2000. 11)



<그림 5> Under Cover, 2005 F/W
(Vogue, 2005. 5)



<그림 6> Balenciaga,
2005 S/S (Vogue, 2004. 12)

전의 반영물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군복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나 이미지와의 조합, 해체 등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밀리터리룩의 표현에 있어 스타일의 혁신성을 표현하고 있다.

1. 중성성

남성과 여성은 출생과 동시에 1차적으로 생리적인 성을, 2차적으로 사회적인 성을 갖게 되며 패션은 이러한 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성적고정관념과 성역할, 미의식의 변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의 초월이 이루어졌고 현대패션이 창출하는 성적이미지 역시 은폐 및 위장 등 다양한 양상으로 그 구분을 모호하게 하거나 반전시켜 끝없는 변화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복에 있어서는 남성복의 이미지나 아이টে를 수용함으로써 남성적 이미지 또는 중성적 이미지를 나타내 전통적인 여성의 가시적 이미지에 대해 도전하는 등 현대패션에 있어 성의 초월을 표현하였다.

특히 세계대전과 생활양식의 변화 이후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여성의 역할에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성자신의 권위와 주장을 위하여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자 남성복을 모방하였고 이 중에서도 가장 강한 상징성을 띠는 것은 군복의 차용이라고 할 수 있다(한순자, 1999). 여성이 남성적인 스타일의 밀리터리 룩을 착용함으로써 남성적인 이미지를 표출하여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것이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

의 방법이 된 것이며(채금석, 이화정, 2002),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보는 해체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여성화 되는 남성, 남성화 되는 여성이 만나는 점점의 성을 초월한 제 3의 성의 대두를 예고하여 성을 초월한 공동의 패션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림 5〉는 2005 F/W 언더 커버(Under Cover)의 피날레 무대로 남고 바랜 듯한 군복의 이미지, 군화, 무표정한 모델들의 모습 등 지배적인 남성 패션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불일치를 중성적이고 해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내어 표면적인 남성다움의 이미지를 약화시켰다. 이러한 성의 해체를 통한 패션의 동질화는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여 동등한 사회적 지위가 요구되면서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션미의 흐름이 부상하게 되면서 엄격히 구분되었던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서도 해체되어 중성적 이미지로 나타내게 된 것이다(김혜영, 김유연, 2005).

현대 여성패션에 나타나는 성의 해체는 주로 남성들만이 착용해왔던 패션아이টে를 여성패션에 도입하거나 남성적인 요소 또는 패션이미지에 영감을 얻어 여성패션에 시도함으로써 나타났다. 〈그림 6〉은 견장, 금장버튼과 같은 군복의 디테일과 짙은 네이비 색상이 주는 엄격한 형태미의 특징들이 사용됨으로써 중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즉 본래의 여성성은 은폐되고 남성의 영웅적 이미지를 반영한 군복의 차용으로 남성적인 여성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 역시 어깨 견장 장식, 각진 어깨, 부풀린 패치 포켓 등 전통적 군복의 이미지를 차용해 넓은 어깨와 가슴을 부각시켜 군복의 권위와 위엄을 이입하고자 하였으며, 가죽 장갑, 부츠 등 남성적 이미지를 살려주는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강인한 인상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밝은 블루칼라와 금색 버튼의 배색 효과로 남성적 군복의 강직성과 부정적 이미지를 약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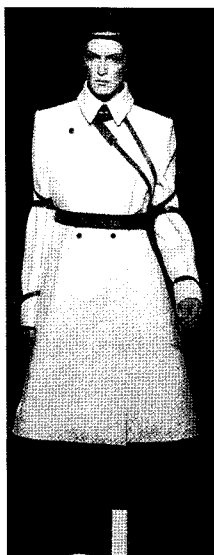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복식은 공동체의 사회적, 도덕적 질서 안에서 착용자의 적합한 지위를 보호받기 위해 채택되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여성이 남성의 군복을 착용하는 행위는 기존의 만연된 암호를 폐지하고 의복에 부과된 성적 상징을 해체함으로써 남성 역할과 남성 지배사회의 강요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반체제적인 저항을 지남과 동시에 반패션주의적 경향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기도 한다(이민선, 1993).

〈그림 8〉은 각진 어깨의 더블 버튼 코트, 긴 가죽부츠, 가죽 끈 장식, 헤드기어 등 미래의 전사 이미지를 나타낸다. 권위적이고 공격적 이미지의 밀리터리 룩을 아방가르드하게 표현한 이러한 이미지는 남성성에 대한 성 정체감의 저항으로서 표시되며 강한 중성적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에 들어서 성 역할의 변화,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의 추구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



〈그림 7〉 Victor & Rolf, 2002 F/W (Vogue, 2002. 5)



〈그림 8〉 Boudicca, 2004 F/W (Harper's Bazaar, 2004. 5)

인에게 자유를 추구하도록 하고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남성성과 여성이라는 상반된 양면성 중 어느 한 부분도 부정될 수 없는 동등한 하나의 본질로 인정하게하여 밀리터리 룩에 있어서도 중성성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도록 한 것이다.

2. 관능성

현대패션에 있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남녀 성의 구분 및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였고 여성인체의 특질을 두드러지게 하였으며, 자기표현에 있어서 더 이상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감성을 가지고 인간 내부의 본연의 모습을 더욱 추구하게하여 성은 자유의 상징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인체는 성적 부위의 노출 및 은폐를 통해 여성인체의 관능미를 강조하는 성향을 나타내며 개인의 감성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자유롭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특히 현대패션에서 관능적인 여성성의 강조는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이미지를 재인식하는 주체적인 표현으로서 과거처럼 남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여성들 스스로가 즐기고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여성의 성적 특질을 강조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김은실, 1999).

〈그림 9〉와 같이 카무플라주 패턴과 허리선을 강조한 벨트로 밀리터리 룩을 특징짓는 최소한의 결합 만으로 만들어진 바디컨서스 스타일은 파워 풀한 여성의 힘과 성의 초월 등 여성해방의 이미지로 여성적인 특성을 과시함을 엿볼 수

있다. 전쟁이나 남성성을 상징하는 카무플라주 패턴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여성의 매력을 강조하고 또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강조한 바디컨서스 스타일로 여성신체의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표현함으로써 보이고자 하는 여성의 성적 욕구를 반영하여 에로틱한 관능미를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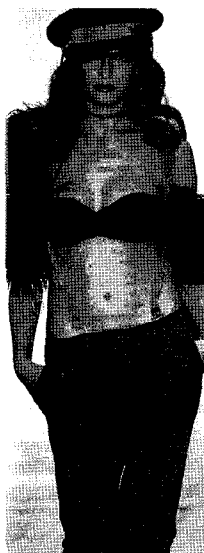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복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성적 욕구가 반영된 유혹의 원천을 따른 것으로 관능적 매력을 표출하는 신체의 노출은 여성의복에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전통적인 여성미의 개념으로 전달되어 왔다(김세영, 1995). 〈그림 10〉 역시 밀리터리풍의 장교모자로 밀리터리 룩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상체에 실크 톱만을 착용한 채 상반신을 거의 드러내어 여성의 성적 매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감과 함께 당당함을 표출하였다. 남성과 다른 여성의 신체를 노출시켜 육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육체 그 자체를 밀리터리 룩의 한 구성요소로써 인식시키고 있으며 여성적인 관능미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밀리터리 룩에서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적 특성을 표현하는 관능성의 강조는 남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도구로써가 아니라 여성의 인체에 대한 부정적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나 역할을 과시하였으며 여성을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인정하고 긍정적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사고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밀리터리 룩에 있어 관능성의 강조는 전통적 군복이



〈그림 9〉 Michael Kors, 2006 S/S (Vogue, 2005. 12)



〈그림 10〉 Diesel, 2006 S/S (Vogue, 2005. 12) 2002 F/W



〈그림 11〉 Jean Paul Gaultier Haute Couture, (W Korea, 2005. 5)



〈그림 12〉 Balenciaga, 2005 F/W (W Korea, 2005. 5)

지녔던 화려한 장식적 특성을 차용하여 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감각으로 발전시켜 여성적인 매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 11>은 카키와 금색의 조화로 군복색상을 연상시키는 크고 작은 나팔꽃 오브제를 연결시킨 드레스와 햄 라인과 소매끝에 깃털로 장식된 밀리터리 재킷이다. 과거의 밀리터리 룩은 전쟁으로 인한 물자고갈로 단순하고 기능적인 스타일을 탄생시켰지만 현대패션에 있어서는 오히려 군복 단추를 액세서리로 부각시키거나 소매부리나 견장 등에 배색테이프를 두르고 브랑드부르(Brandebourg)라 부르는 가슴장식판을 달아서 화려하게 장식하는 등 군복의 디테일을 정교한 장식의 기교로 표현하여 부드러운 여성인체의 매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림 12>는 군복의 딱딱한 느낌을 주는 벨트를 가는 크리스탈 나비벨트로 대체하여 가는 허리를 강조하고 어깨견장이나 금속단추와 같은 군복의 요소를 어깨노출이 강조된 원피스에 장식적인 요소로 적용하였다. 또한 부드럽고 비치는 소재사이로 보여지는 여성의 인체는 틈새로 보고자하는 욕구를 유발시킴으로서 관능성을 표현하여 밀리터리 룩의 권위적인 느낌을 여성적 이미지로 변화시켰다. 과거 모던함이 주던 단순함은 복잡한 현대인들에게 강하게 흡수되었지만 모던함이 주던 차가움과 냉정함, 획일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이경아, 전해정, 2005) 현대인들의 감성은 밀리터리 룩에 있어서도 군복의 디자인적 요소와 디테일 등을 장식의 표현으로 탈바꿈시켰다. 전통적인 군복에서의 장식은 신분구별이나 공로 훈장과 같은 전리품을 다는 트로피즘의 한 형태였

지만 현대패션에 표현되고 있는 밀리터리 룩은 이러한 상징성을 왜곡시키고 장식적인 이미지만을 차용하여 관능적인 여성의 매력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3. 해체성

20세기 후반 각 분야에 걸쳐 나타난 탈 모더니즘 현상으로 인해 기존의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혼란을 겪게 됨에 따라 기존 개념들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6년 자크 데리다(J. Derrida)를 중심으로 나타난 해체주의는 해체라는 단어조차 해체하는 모든 텍스트들에 대한 해체로 개체의 존엄과 자유, 차이, 타자, 역사성을 인정하고 그동안의 고정된 서구 이성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하였다(김성곤, 1998:15).

이에 따라 변화적이며 한계가 없고 연계적이며 개방적인 특성을 갖는 현대패션은 해체와 혼성모방, 절충주의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어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법칙과 미를 발견하거나 존재하지 않던 것을 창조해 내게 된다(진경옥, 박민여, 2000). 따라서 밀리터리 룩 역시 군복 고유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보다는 군복이 갖는 디자인의 요소나 상징적인 디테일을 서로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거나 해체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림 13>은 인도 터번을 이용한 헤어장식과 군복을 연상시키는 카무플라주 패턴의 톨 300m을 이용한 오프슈르티적인 감각의 이브닝 드레스이다.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가 '여러 장르를 혼합하면 질서가 깨져 혼란이 오지만 그 와중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Elle Korea, 1993: 8).'라고 한 것처럼 남성적이고 전쟁을 상징하는 카무플라주 패턴은 그 본래의 미학적 개념을 전복시키면서 상류층의 기호와 취미에 접근하고 있으며, 디자이너의 개성은 동양과 서양, 남성과 여성, 주류와 비주류간의 해체를 통해 밀리터리 룩의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표현하였다.

또 스포츠웨어와 레저문화의 확대에 따른 캐주얼화는 20세기 말부터 현대패션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밀리터리 룩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비행식성을 통한 자유로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14>는 개더가 잡힌 원피스와 팬츠의 레이어드 스타일에 카무플라주 패턴의 짧은 블루종을 연출하여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다. 즉 군복이 갖는 독특한 형태나 이미지를 현대인이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조합하여 재해석함으로써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였으며, 또 군복이 갖는 본래의 의미나 목적, 공간과 관계없이 복식의 용도를 모호하게 하는 T.P.O의 상호텍스트성을 표현한다.

반면 실용적이기 보다 보이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현대패션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며 불확정한 형태로



<그림 13> Jean Paul Gaultier Haute Couture, 2000 S/S (Vogue, 2000. 3)



<그림 14> D&G, 2003 S/S (Harper's Bazaar, 2002. 12)

추상화, 비정형화, 기형화, 형태가변화 등의 다양한 외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성광숙, 이순홍, 2004). <그림 15>는 한쪽 가슴을 완전히 드러낸 채 카키색의 톱과 팬츠, 야구방망이, 헬멧 등을 함께 연출시켜 여군 테마를 부각시킨 다음의 존 갈리아노 작품이다. 완전 개방된 가슴은 에로틱하기보다 개성과 자유를 표방하는 여전사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즉 소외되었던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탈중심화를 지향하는 해체주의적 시각으로서 스타일의 혁신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밀리터리 룩의 혼성적이고 해체적인 특성은 패션을 통해 물질문명과 획일화된 현대 사회를 고발하고 인간성의 회복과 자아실현이라는 가치관을 표현하게 됨과(이미숙, 2003) 동시에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 내는 개념을 부정하며 형태의 왜곡과 과장, 기존 의복구성 방식의 탈피 등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열린 사고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6>은 아웃포켓이 달린 군복 재킷을 그대로 붙여 놓은 듯한 튜브 톱과 여성스러운 스커트, 군화를 연상시키는 부츠 등 탈구성 방식과 목적이 다른 아이템들이 믹스됨으로써 패션의 이미지는 이질성과 부적합성, 의외성을 발생시키게 된다. 모델의 바디 위에 단순히 전시의 개념으로 올려둔 것 처럼 연출된 재킷은 인체와 무관하면서 인체와 의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의 자율성을 표현한 것으로 완성되었으나 미완성되어 착장되지 않은 것 처럼 착장방식의 해체를 통한 의미의 불확정성을 나타낸다. 즉 과거 군복의 이미지는 현대 혹은 미래로 재조명한 시간상의 혼성과 불확정적인 탈구성 방식으로 인해 밀리터리 룩이 갖는 본래의 의미나 진리는 사

라지고 완전히 이질적인 새로운 미를 나타낸다.

<그림 17> 역시 왜곡과 변형을 통한 밀리터리 룩의 해체성을 보여준다. 파격적인 핑크헤어와 마스크, 서로 다른 소재와 톤으로 구성된 카키 컬러, 기존구성방식의 파괴로 변형된 블루중 점퍼와 팬츠, 서로 다른 소매길이 등 기존의 가치체계에서 추구하던 군복의 완벽한 균형과 대칭에서 벗어나 탈현상을 통해 새로운 생동감과 극단적인 변화를 준것으로 이러한 형태는 밀리터리 룩의 해체적 변형을 가시화하는 특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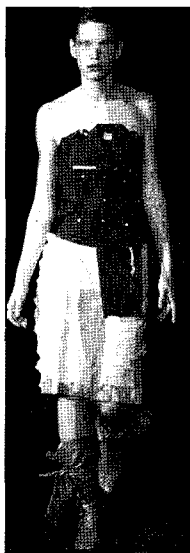
이와 같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표현되는 밀리터리 룩의 실험적이고 새로운 형식, 이탈, 비정상적인 이미지들은 그 대상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또 그 대상이 갖는 상징적 의미의 허구성을 표출하게 한다. 또한 군복 고유의 의미를 부정하고 각기 다른 분위기의 단품 아이템을 코디네이션 하여 그 스타일들의 경계와 구분을 흐려지게 하고 이로 인해 연출되는 밀리터리 룩은 불확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스타일상의 변화는 이 시대의 새로움에 대한 변화의 욕구이며 이 시대를 특징짓는 하나의 이상이기도 하다.

IV. 결 론

제 1·2차 세계대전을 발단으로 탄생된 밀리터리 룩은 남성군복의 직접적인 모방에서 시작하여 반전운동의 저항패션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융합되어 독특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5>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2001 S/S (L'Officiel, 2001. 3)



<그림 16> A.F.Vandevorst, 2004 F/W (Harper's Bazaar, 2004. 5)



<그림 17> Junya Watanabe, 2006 F/W (Vogue, 2006.5)

단순한 유행에 그치는 트렌드가 아닌 패션의 클래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연구결과 중성성, 관능성, 해체성의 특성을 나타냈다.

첫째, 중성성으로 여성이 남성적인 스타일의 밀리터리 룩을 착용함으로써 성의 이분법적인 이미지를 초월하여 중성적인 매력을 표출하여 의복에 부과된 성적 상징을 해체하였다. 이러한 성의 해체를 통한 패션의 중성화는 성역할의 차이가 사라짐에 따라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여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요구하게 되었고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션미의 흐름이 부상하게 되면서 엄격히 구분되었던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서도 해체되어 중성적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남성성 또는 남성스러운 여성성이 아닌 통합적 이미지로서 밀리터리 룩의 중성성의 표현은 20세기 밀리터리 룩과는 다른 인간자체로서의 의미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다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하게하여 밀리터리 룩에 있어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관능성으로 과거 밀리터리 룩에 있어 남성의 신체적 특성을 강조한 실루엣과 디테일의 단순화, 세부장식의 약화 등을 통해 남성의 강직성을 표현한 것과는 반대로 전쟁이나 남성성을 상징하는 카무플라주 패턴, 군복의 세부적인 요소 등 남성적인 이미지를 여성적 이미지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여성인체의 노출과 은폐를 통해 여성의 관능적 매력을 강조하였으며, 군복이 지닌 디자인의 요소나 디테일을 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감각으로 탈바꿈 시킨 장식의 기교를 통해 관능적인 여성성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관능성은 여성을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인정하고 긍정적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사고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해체성으로 군복 고유의 이미지를 주로 사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군복이 갖는 디자인적 요소나 상징적인 디테일을 서로 다른 이미지와의 조합 또는 형태의 왜곡과 과장, 현대 혹은 미래로 재조명한 시간상의 혼성과 탈구성 방식을 통해 밀리터리 룩이 갖는 내적사상이나 상징성 대신 새로운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해체성은 군복에 대한 전통과 가치체계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새로운 미적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조형질서를 모색하고자하는 열린 사고를 반영하며 실용적이기보다는 보이기 위한 독창적 표현으로 인해 시각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유인자극으로서 밀리터리 룩의 새로운 조형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은 전쟁의 부산물이며 저항적, 남성적 이미지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군복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새로운 스타일로 전환시켜 현대여성들에게 개성과 자유의 표출이라는 미적만족을 충족시켜 주

었으며, 디자이너 각자의 개성과 독창성으로 재무장되어 현대패션의 흐름에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밀리터리 룩의 특성은 앞으로도 그 형태나 디테일의 요소가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되어 패션의 흐름에 반영될 것이며 이러한 전개는 다변하는 대중들의 미적 가치관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간문자(1997). 여성패션에 표현된 밀리터리룩에 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21(1), 119-128.
- 김성곤(199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 민음사.
- 김세영(1995). 현대 남성복의 조형적 특성에 나타난 양성화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실(1999). 페미니즘이 1990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1997). 밀리터리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희(1997). 현대복식에 표현된 밀리터리룩의 조형성 연구. *가톨릭상지전문대학 논문집*, 27, 137-157.
- 김혜영, 김유연(2005). 모더니즘을 통해 구현된 패션의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5(1), 43-58.
- 성광숙, 이순홍(2004). 서양복식에 나타난 양적 과장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Ⅱ. *복식*, 54(7), 151-164.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1996).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 윤경은(2003). 전투복을 응용한 현대 밀리터리 룩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아, 전해정(2005).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Ⅱ. *복식*, 55(1), 59-72.
- 이미숙(2003).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카무플라주 패턴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선(1993).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유미(1996). 군복이미지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임상임, 추미경(2004). 밀리터리 룩에 표현된 파시즘. *복식문화연구*, 12(5), 845-858.
- 진경옥, 박민여(2000).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혼성모방. *복식*, 50(5), 143-158.
- 채금석, 이화정(2002). 밀리터리 패션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 연구. *복식*, 52(1), 103-115.
- 한순자(1999). 밀리터리 룩의 스트리트 패션화에 관한 연구. *복식*, 44, 19-36.

Elizabeth B, Hurlock. 박길순, 정현숙 역(1990). 복식의 심리학. 서울: 경춘사.

J. Anderson Black, Madge Garland, 유길순 역(1997). 세계 패션사 2. 서울: 자작아카데미.

Elizabeth Rouse(1989). *Understanding Fashion*. London: BSP professional books.

Jane Malvaugh(1988).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Viking.

Shirley M. O'Donnel(1989). *American Costume 1915~1970*.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Elle Korea(1993. 8).

Hi Fashion(1989. 6).

(2006년 5월 16일 접수, 2006년 8월 1일 채택)